

1 제17918호 2판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11 BOX OFFICE

영화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식객	37만 9천566	191만 5천622
2	베오울프	36만 5천619	50만 1천734
3	세븐 데이즈	25만 2천313	34만 6천747
4	색, 계	22만 343	64만 4천57
5	스카우트	12만 9천490	16만 7천940
6	바르게 살자	6만 4천589	210만 8천789
7	마을금고 연쇄살인 사건	5만 7천446	7만 5천174
8	더 버터플라이	2만 173	17만 5천445
9	로스트 라이언즈	1만 7천 583	14만 3천280
10	원스	9천740	15만 8천28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1.6
2	태형사신기	MBC	31.0
2	대조영	KBS1	30.0
4	머느리 전성시대	KBS2	28.9
5	황금신부	SBS	23.1
6	이산	MBC	22.9
7	황과 나	SBS	21.6
8	이현동 마님	MBC	19.4
9	해피 선데이	KBS2	18.9
10	KBS 뉴스9	KBS1	18.2

(자료제공:TNL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피어더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티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이음)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텔미	원더걸스
2	배반	빅마마
3	거짓말	빅뱅
4	돌이어서	이루
5	사랑에 미치면	임정희
6	매일매일	V.O.S
7	한번 더 이별	성시경
8	사랑은 맛있다	휘성
9	못된 남자	엠투엠
10	My Story	브라운 아이드 소울

(자료제공:멜론)

팔방미인 아나운서 브라운관 휘젓는다

보도·교양 넘어 예능 프로그램서 맹활약



<이정민>



<김주희>



'지피지기'의 서현진, 최현정, 문지애, 손정은 아나운서. (왼쪽부터)

'아나운서 전성시대'

최근 개편을 마친 방송 3사 프로그램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나운서들의 약진이다. 아나운서들은 뉴스 등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넘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예인들이 장악했던 자리를 단숨에 꿰찼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MBC다. 지금까지 MBC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경제야 놀자' 코너와 '환상의 짝꿍'을 진행하고 있는 오상진 아나운서.

강수정·노현정을 키워낸 KBS 등과 달리 타 방송사에 비해 '스타급 여자 아나운서'를 배출하지 못했던 MBC는 이번 개편 때 여자 아나운서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직은 시청자들에게 낯선 문지애 아나운서는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도전 예의지왕'의 메인 MC로 발탁됐다. 문 아나운서는 이경규, 이희재와 함께 MC를 맡아 연예인 패널들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불가능은 없다' 코너에서 김 제동·김구라와 함께 갖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서현진 아나운서는 서지영, LPG 한영 등 연예인이 맡았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안방마님 자리도 차지, 김용만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명수와 현영이 메인 MC를 맡아 화제가 된 '지피지기'에는 아예 서현진·문지애·최현정·손정은 아나운서가 동시에 출연한다.

'일요일이 좋다'의 '옛날TV' 코너에 출연중인 미스코리아 출신 김주희 아나운서를 제외하고는 아나운서들의 예능 프로 진입이 미미했던 SBS도 몰량 공세로 나섰다. 유재석을 메인 MC로 내세운 '일요일이 좋다'의 새 코너 '기적의 승부사'에 아나운서들을 대거 내보낸 것.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유정현이 팀장을 맡은 아나운서팀에는 박은경·박찬란·정미선·김일중·김주희 아나운서가 합류, 신정현·윤종신·휘성 등 연예인팀과 매회

대결을 벌인다.

'상상플러스'의 최송현, '스타 골든벨'의 박지윤 아나운서 등 여자 아나운서의 인기가 높은 KBS는 '제2의 강수정'으로 이정민 아나운서를 기용했다.

이정민·정선희 등과 함께 한 '여결 파이브'를 통해 스타급 아나운서로 떠올랐던 강수정처럼 '스핀지' '가족 오락관' 등을 맡았던 이정민 아나운서는 '해피 선데이'의 '하이 파이브'를 통해 현영·조혜련·채연 등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25일 방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텔미' 춤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는 등 다양한 끼를 발산 중이다.

아나운서들의 등장에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의 지나친 겹치기 출연 탓에 일단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피지기'의 경우 자사 아나운서를 띄우려는 의도가 엿보여 프로그램 자체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민이기자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리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BS '그 여자가 무서워' 유선

SBS가 오랜만에 내놓은 일일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청률 5%에서 출발, 방송 한 달 만에 11~12%까지 올라선 SBS 일일극 '그 여자가 무서워'의 일등공신 유선을 만났다.

- 하루 100신 가까이 찍는다.

▲영림(극중 그의 배역 이름)의 복수가 시작되면서 이번 달 들어 그렇게 됐다. 처음에 일일극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선배 연기자들이 '일일극은 여유를 갖고 촬영하니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웬걸...(웃음). 더구나 요즘 영림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촬영할 일이 많아졌다.

"대리모 역할에 푹 빠졌어요"

- 영림을 연기하는 심정이 어떤가.

▲연기하면서 맡은 인물을 살아보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대리모로 나오는 것부터 영림이가 살아가기 위해 힘들게 결정한 일이지만 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고 남한테 드러낼 수도 없는 일 아닌가.

- 사고로 얼굴이 망가지는 분장도 했고 출산도 했다.

▲영림이 성형 전후로 인상이 180도 바뀌는 설정이 매력적이라 이 드라마를 선택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보니 감절로 힘들다. 변신은 좋는데 변신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웃음). 미혼으로서 아기를

출산하고, 젖이 붙어 짜내고, 아기를 보여 달라고 매달리는 연기를 펼치려니 촬영을 앞두고는 막연하게 느껴지고 두려웠다. 그런데 막상 '숫'이 들어가니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되더라. 데뷔 초 이런 역이 주어졌으면 감당 못했을 것이다.

- 극의 전개가 무척 빠르다.

▲보통 일일극은 생활극이라 우리가 생활하는 계절이나 시간과 보조를 맞추며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는 '잠프'가 많다. 순식간에 몇 년 후가 되는 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겪고 연기를 펼치다 보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드라마 막바지가 된 것 같다(웃음).

/연합뉴스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